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신용의 중요성은 높아만 진다. 신용은 곧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신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신용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용은 곧 개인의 지불능력이나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는 것이다.

신용이 개인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쓰이면 서 개인신용정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 말은 금융거래나 상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다. 예전에는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때만 신용이 필요했다. 그런데 요즘은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도 신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신용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해서 신용을 점수화하는데 이것이 신용점수다. 신용점수는 1부터 1000점까지 있는데 이 점수를 또 10개의 등급으로 나눈 것이 바로 신용등급이다. 신용등급

은 1등급이 가장 높고 10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다. 제1금융권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한 커트라인은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조금 있지만 평균 5등급 정도라고 한다.

신용등급 어떻게 활용되나?

신용정보가 가장 많이 활용 될 때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때다. 금융회사들은 개인의 신용정보(소득 및 금융거래 정보 등)를 점수화 해 개인신용평점으로 관리하고 이

신용사회의 재산, '신용등급'
무료신용등급조회 하고
신용등급 올리기



를 토대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해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 개인신용평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가능 여부 확률이 높아지고 대출액 한도 및 신용카드 결제 한도액도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이 밖에도 요즘은 결혼정보회사에 회원가입을 할 때나 맞선을 볼 때 등도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많은 회사들이 취업 시 서류제출 목록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외에 신용조회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말 말 그대로 신용이 한 사람의 스펙이 된 세상이다.

신용등급 왜 낮아질까?

신용점수가 낮아지는 경우는 무척이나 다양하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연체다. 적은 액수의 연체(10만원 이상)라도 한 번 하게 되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거래내역정보(연체사실 등)가 등록되어 개인신용평점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개인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빚을 지거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평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휴대폰 사용

대금 연체, 금융질서 문란, 사기대출, 수표 및 어음부도, 개인파산 등으로 낮은 신용평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낮은 신용등급, 어떤 불이익?

신용정보는 은행거래연합회라는 곳에 모두 모여 있다. 이곳에 모인 정보를 모든 금융회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높은 신용등급인지 누가 낮은 신용등급인지 모든 금융회사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에 A카드사에서 연체를 했고 B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려 한다고 했을 때 A카드사에서의 연체기록을 B카드사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B카드사에서의 카드 발급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을 받기가 힘들다. 혹여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도 높은 이자율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심하다. 게다가 기존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야 할 수도 있고 빚독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고 당좌예금 개설 금지나 사용 중인 당좌계좌가 해지처리 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연대보증인 자격 상실, 개인사업 시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 제약, 거래 중인 예금통장 지급 정지 등 금융거래 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는 고신용이다?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 하는 부분이 '고소득=고신용' 일까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건전한 신용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신용등급이 더 높고 오히려 소득수준이 높더라도 자주 연체를 하는 사람은 신용등급이 낮다.

낮은 신용등급, 어떤 불이익?

이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신용정보조회가 아예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용정보조회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3자를 통한 신용조회를 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만 본인이 하는 신용정보조회는 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인의 신용정보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신용평가회사가 운영하는 신용조회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KCB의 올크레딧'이라는 곳이다.

'올크레딧'에 접속을 하면 무료로 신용등급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연 1회에 한해서만 무료로 할 수 있던 것이 이제는 횟수가 늘어나 연 3회, 72시간 동안 무료로 신용등급 조회를 할 수가 있다.

참고로 휴대폰이나 인터넷, 케이블TV 개통 시에 하는 신용조회는 금융거래와 무관한 신용조회기에 신용하락과 관계가 없지만 금융거래나 대출을 하기 위한 신용정보조회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정말 대출을 할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

TIP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 거래 실적을 많이 올리기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꼭 필요할 때만 이용하기
- 공과금, 통신비, 카드대금 납부 등은 자동이체 활용
- 정기적으로 신용등급 조회하기
-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해지하기
- 주소지나 연락처 변경, 금융회사에 반드시 통보하기
- 가계부 쓰기로 계획적인 소비생활 하기